

미국 마감 상황

2008.12.19

이승준 02) 2009-7088
leesj@leading.co.kr

18일 뉴욕증시는 미국 '빅3' 자동차업체에 대한 우려와 국제유가의 폭락으로 인한 경기후퇴 우려 증폭으로 어제에 이어 하락 마감.

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219.35p(2.49%) 하락한 8,604.99에 장을 마감. S&P가 GE캐피탈의 등급전망을 하향 조정하여 GE주가가 8.2% 급락.

S&P500 지수는 전일대비 19.14p(2.12%) 떨어진 885.28에 마감.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6.94p(1.71%) 떨어진 1,552.37을 기록.

이날 증시는 GE캐피탈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소식과 크라이슬러의 공장가동 중단 소식 등 미국 자동차 업계에 대한 우려와 유가 급락에 따른 에너지 주들의 약세로 인하여 장 후반 급락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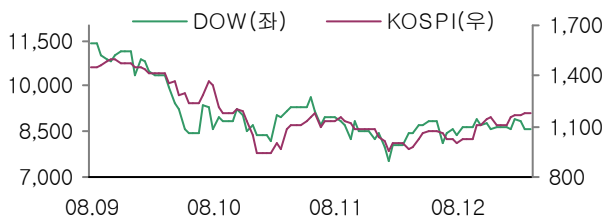
크라이슬러는 모든 공장의 가동을 한달 동안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GM도 이에 앞서 미국 내 공장 가동 30% 중단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.

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(OPEC)의 220만배럴 감산 계획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후퇴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폭락. 이날 1월 서부텍사스원유(WTI) 가격은 전일대비 3.84달러(9.6%) 폭락한 36.33에 마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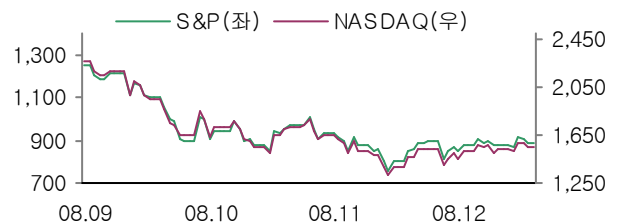
13일 마감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2만1,000명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55만명을 상회. 미국 11월 경기선행지수는 0.4% 하락한 99.0을 나타내며 부진한 경기지표도 증시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.

미국 시장 주요 지표(pt, %)

지수	종가	1일	5일	10일	1개월	3개월	12개월
DOW(좌)	8,604.99	-2.49	0.47	2.73	2.14	-18.89	-34.85
S&P(좌)	885.28	-2.12	1.34	4.74	3.04	-23.44	-39.07
NASDAQ(우)	1,552.37	-1.71	2.95	7.39	4.66	-26.04	-40.32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- *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,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.
- *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*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